

제 1 교시

국어 영역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적 판단**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판단에 대해 여러 철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벤담은 행복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흄은 이성이 정념의 노예이고 도덕 법칙은 이성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며 도덕적 판단에서 감정의 영향을 중시했다. 이와 달리 칸트는 도덕적 판단은 이성적 추론으로 도출해 낸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합리주의 입장에 영향을 끼쳤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입장 중에서도 주류가 되었던 합리주의에서는 이성적 추론이 비자동성, 의도성 등의 특징을 지니며,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여 이성적 추론이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직관주의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추론만으로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합리주의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직관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에 감정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상에서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감정적 반응의 영향하에,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기계인 직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직관주의 입장의 대표적 인물로 하이트가 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역겨움이나 경멸감을 유발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말문 막힘’이라 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추론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직관과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감정을 통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이성적 추론으로 그 판단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하이트는 도덕적 판단에 작용하는 직관을 도덕적 직관이라 하였다. 도덕적 직관은 여섯 가지 도덕적 기반에 사회·문화적 요소와 개인적 경험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는 모든 동물의 뇌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스위치인 모듈 개념을 활용하여 여섯 가지 도덕적 기반 각각을 ‘도덕 모듈’이라 했다. 그는 이를 생물학적·문화적인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얻어진 특수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덕/비도덕’으로 짝지어진 여섯 가지 도덕 모듈로 ‘배려/피해’, ‘공평성/부정’, ‘충성심/배신’, ‘권위/전복’, ‘고귀함/추함’, ‘자유/압제’를 제시했다. 각 도덕 모듈은 ㉠ 본래적 동인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 동인은 각 모듈을 작동시키는 근원적인 상황이나 대상이다. 예를 들어 ‘배려/피해’ 모듈에 해당하는 본래적 동인으로 아이가 우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우는 아이를 본 부모는 아이를 보살피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부모의 배려 행위가 생물학적·문화적인 진화를 거쳐 ‘배려/피해’ 모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하이트는 모듈을 작동시키는 또 다른 요소로 본래적 동인과 연관된 ㉡ 통용적 동인을 제시했다. 통용적 동인은 본래적 동인 외에 도덕 모듈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대상을 의미

한다. 강아지 같은 귀여운 대상을 돌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배려/피해’ 모듈의 통용적 동인으로 인한 것이다. 그는 도덕 모듈과 관련된 두 동인의 예와 특징적 감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배려/피해	공평성/부정	충성심/배신
본래적 동인	자식의 고통	협조적 태도, 이기적 태도	집단에 대한 도전
통용적 동인	귀여운 대상	의도적 세금 납부 회피	국가
특징적 감정	동정심	감사, 분노, 죄책감	집단에 대한 궁지

	권위/전복	고귀함/추함	자유/압제
본래적 동인	지배, 복종의 표시	병자, 오염물	독재자
통용적 동인	윗사람	금기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
특징적 감정	두려움, 존경	구토감	분노

<표>

하이트는 두 동인으로 인해 도덕 모듈이 작동하는 동시에 동인과 관련된 감정이 수반되면서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령 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르는 아들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어떤 집단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통용적 동인은 문화적 학습, 경험에 의해 집단이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도덕 모듈이 같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의 도덕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의 도덕이지 보편적 도덕이 아니다. 따라서 하이트는 도덕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이트 이론의 강점은 도덕적 직관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견해 차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편견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가지는 장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②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도덕적 판단에 대한 논쟁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을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도덕적 판단에 대한 특정 학자의 주장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특정 학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하이트는 도덕 모듈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짝을 지어 제시했다.
- ② 벤담은 도덕적 판단에서 다수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을 중요시했다.
- ③ 하이트는 도덕적 기반이 뇌 안에 생득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④ 하이트는 집단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보편적 도덕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 ⑤ ‘윗사람의 정당한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권위/전복’의 모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3. **도덕적 판단**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흄은 도덕적 판단에서 이성보다 감정을 중시했다.
- ② 칸트는 도덕적 판단을 이성적 추론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 ③ 하이트는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합리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이성적이면서 반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직관주의에서는 일상에서의 도덕적 행동이 감정적 반응에 바탕을 둔다고 보았다.

## 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도덕 모듈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 ② ㉡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 ③ ㉠은 ㉡을 포함하면서 도덕 모듈을 자극한다.
- ④ ㉠은 도덕 모듈을 자극하는 모든 상황이고, ㉡은 특수한 상황이다.
- ⑤ ㉠과 ㉡ 모두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학습된 도덕이다.

## 5. 윗글의 ‘하이트’의 주장과 &lt;보기&gt;에 나타난 주장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도덕적 판단에 대해 직관주의와 합리주의를 종합하는 관점으로 연구하는 학자 A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이성이나 감정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적 판단을 인간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형과 □□형으로 구분했다. ㉠○○형은 뇌의 감정적 활동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형은 이성적 분석과 추론으로 정보를 느리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는 ㉢□□형을 습관화하는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 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형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고 ○○형의 감정이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보호’, ‘피해’, ‘충성’, ‘존경’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문화권마다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보고 ㉤문화권에 따라 형성된 도덕 판단 기준이 도덕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 ① 직관과 ‘더불어 발생하는 감정’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하이트의 주장과 ㉠라는 주장은, 감정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이성적 추론’으로 도덕적 판단을 ‘합리화’한다는 하이트의 주장과 ㉡라는 주장은, 이성이 도덕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도덕 모듈이 작동’함과 동시에 ‘감정이 수반’된다는 하이트의 주장과 ㉢라는 주장은, 도덕적 판단이 감정의 영향하에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같은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도덕 모듈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하이트의 주장과 ㉣라는 주장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도덕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의 도덕’이라는 하이트의 주장과 ㉤라는 주장은, 도덕적 판단이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한층 더 복잡해진 국제 정치를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국제 정치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 정치의 네트워크는 다수의 노드와 노드를 상호 연결하여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것들이 이동하는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노드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내부에서 다른 노드들과 다수의 링크를 맺고, 서로 다른 노드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드를 허브라고 한다. 국제 정치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하는 네트워크가 복수로 공존하며 이 네트워크들이 겹쳐져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최근에 국가들을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에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증가하였지만 네트워크의 불균등성과 비대칭성은 더욱

⑥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힘의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진행되는 상호 의존의 증가는 허브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링크를 갖도록 한다. 이는 허브 국가가 '㉠ 패놉티콘 효과'와 '㉡ 조임목 효과'를 통해 상호 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게 한다. 패놉티콘 효과는 특정 국가가 네트워크의 허브 위치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링크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허브를 거쳐 가므로, 허브 국가는 접근 가능한 정보가 많다는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조임목 효과는 허브를 통하지 않고는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허브 국가가 다른 국가의 링크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등한 네트워크에서 허브 국가는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제재가 있다. 이러한 경제 제재는 전통적인 경제 제재와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경제 제재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대상국 내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를 ㉢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국제 연합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이라크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이로 인한 식품 비용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이라크의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또한 전통적인 경제 제재는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경제 제재로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제 제재는 이를 부과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제재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를 활용한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나 산업의 생산 방식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허브 국가는 경제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을 ㉣ 촉진하기도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할 때는 경제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자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 허브 국가가 제재 대상 국가와 그 대상 국가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연결하는 링크를 차단하면, 네트워크에서 제재 대상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상대국 내의 특정 대상에만 효율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데, 이를 스마트 제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금융 제재의 경우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거나 타국에 예치된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스마트 제재는 특정 대상만을 제재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부담이 작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제재는 제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극대화하지만 제재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내외의 정치적 부담은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다.

허브 국가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비롯해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네트워크 내의 다른 국가가 허브 국가와 더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허브 국가가 경제 제재를 반복적으로 하면 제재 대상 국가가 네트워크 자체를 재편하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가들이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를 시도하거나 제재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안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를 ㉥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허브 국가의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6.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3점]

- ① 최근의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을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은 무엇인가?
- ② 허브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 기구는 무엇인가?
- ③ 전통적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가 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 ④ 전통적 경제 제재와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제재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⑤ 허브 국가가 경제 제재를 반복적으로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허브 국가는 ㉠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② 허브 국가는 ㉡을 통해 네트워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
- ③ 허브 국가는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공존을 허용한다.
- ④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의존이 증가할수록 ㉠과 ㉡의 영향력이 커진다.
- ⑤ 네트워크 내에서 허브 국가의 상대적 지위가 ㉠과 ㉡을 가능하게 한다.

8. ㉤의 시도가 가능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네트워크에서 국가 간의 상대적 지위가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 ② 허브 국가가 새로운 대안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제재 대상 국가가 노드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링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 ④ 제재 대상 국가가 기존의 네트워크와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이다.
- ⑤ 허브 국가가 새로운 링크를 통해 제재 대상 국가와의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A국가는 B국가에 대한 무역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한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B국가 기업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을 통제하였다. 반도체 공급망은 설계, 제조, 조립 등의 각 단계가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 의해 분업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 A국가는 설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사용한 기업들이 B국가 기업에 반도체 관련 수출을 할 경우 자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A국가의 국민이 B국가의 반도체 기업 인력으로 지원하는 활동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에서 B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B국가는 A국가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다.

- ① A국가가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B국가가 기존의 반도체 공급망을 대체할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네트워크 재편으로 인해 A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A국가가 B국가에 대한 반도체 관련 인력을 통제할 것은 스마트 제재와 달리 네트워크 내의 링크를 차단하는 효과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국가가 B국가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을 통제할 것은 B국가가 A국가를 통하지 않고 기존의 반도체 공급망에 연결되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A국가가 B국가에 대한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수출을 통제할 것은 전통적 경제 제재보다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군.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이루어져
- ② ㉡: 옮겨가는
- ③ ㉢: 키울
- ④ ㉣: 내세우기도
- ⑤ ㉤: 굽힐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표면으로부터 20km 위로는 공기가 희박하여 산소를 이용하는 제트 엔진으로는 물체를 밀어내는 힘인 추력을 내기 어렵다. 로켓 엔진은 진공인 우주에서도 추진제를 연소시켜 추력을 낼 수 있는데, 추진제에는 연료뿐만 아니라 연료를 태우는 데 필요한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켓 엔진은 중량에 비해 추력이 매우 높고, 빠르게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탑재체를 싣고 대기권 위로 날아올라야 하는 비행 체뿐만 아니라 빠르게 적을 타격해야 하는 각종

군용 미사일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로켓은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추진제가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으로 ㉠ 나눌 수 있다.

액체 로켓은 로켓 안에 분리되어 저장된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 시에 혼합하여 추진제로 사용한다. 고체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를 균질하게 혼합한 추진제인 그레이를 사용한다. 그레이는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에도 구조적 안정성이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또한 연소되는 면 이외에 그레이의 다른 부분에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열성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로켓은 사용 목적과 운용 고도 등에 따라서 추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액체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의 양을 비행 중에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필요한 추력을 낼 수 있다. 고체 로켓은 비행 중에 추력을 조절하기 어렵지만 그레이를 통해 미리 설정된 추력을 내게 만들 수 있다. 그레이는 연소되는 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큰 추력을 낼 수 있다. 그레이가 미리 설정된 추력을 내도록 연소되는 면의 넓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레이의 형상을 달리한다. 그레이의 연소는 연소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연소면은 최초 연소면에 평행하다.

시간에 따른 추력의 변화는 중립형, 증가형, 감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레이가 점화되면 노즐에서 연소 가스가 분출되면서 추력이 0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설정된 추력을 보이다가, 연소가 끝나면 추력이 급격히 떨어져 0이 된다. 중립형은 정해진 시간 동안 추력이 일정하다. 추력이 일정하면 비행체의 경로를 제어하기 쉽다. 증가형은 추력이 그레이의 연소가 끝나기 직전에 최대가 된다. 이를 활용 하여 목표한 곳에 가까워질수록 추력이 증가하는 비행체를 설계할 수 있다. 감소형은 초기에 추력이 최대가 되어 높은 속도에도달한 뒤,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추력이 된다. 이를 우주로 날아오르는 비행체에 활용하면, 낮은 고도에서 큰 추력으로 중력과 공기 저항을 빠르게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추력의 세 가지 변화는 그레이의 연소 방식 및 단면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 연소 방식에는 단면연소, 내면연소, 외면연소, 내외면연소 등이 있다. 이 방식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단면을 가진 그레이를 상정해 보자. 로켓의 진행 방향으로 타들어 가는 단면연소 방식은 연소되는 면의 넓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중립형을 보인다. 내면연소 방식의 그레이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형태이다. 그레이의 양 끝을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단면연소를 차단하면 그레이의 안쪽만 타들어 가게 되어 연소 되는 면의 넓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형을 보인다. 외면연소 방식은 그레이의 바깥부터 타들어 가서 연소 되는 면의 넓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형을 보인다. 내외면연소 방식은 그레이의 안에서는 연소 되는 면의 넓이가 증가하고 그레이의 바깥에서는 연소되는 면의 넓이가 감소하여 강한 추력을 낼 수 있다. 한편 연소

방식이 다른 그래인을 접합하여 비행 시간에 따라 추력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래인의 연소 방식 중에서 내면연소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내면연소 방식은 단면연소에 비해 연소되는 면이 넓어서 강한 추력을 내는 데 유리하며, 로켓의 외부 표면에 전달되는 열이 적어 외면연소나 내외면연소 방식에 비해 안전하다. 내면연소 방식은 그래인의 단면 형상을 달리하여 추력의 크기를 다르게 낼 수 있다. 내면연소 그래인의 단면 형상은 <그림 2>와 같이 별형, 수레바퀴형, 나뭇가지형 등이 있다.



별형 수레바퀴형 나뭇가지형  
<그림 2> 내면연소 그래인의 단면 형상

단면의 빈 공간이 별형인 내면연소 그래인은 고체 로켓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별의 형상을 다르게 하여 원하는 추력을 얻을 수 있다. ㉠ 나뭇가지형 그래인의 경우 단면 형상이 복잡하여 초기에 연소되는 면이 넓어 큰 추력을 내고 그 이후로는 낮은 추력을 낸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그래인은 연소되는 면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연소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 ② 액체 로켓은 로켓 안에 연료와 산화제가 섞여서 연소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 ③ 액체 로켓은 무거운 탑재체를 가지고 우주로 날아가야 하는 비행체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로켓 엔진은 중량에 비해 추력이 높고,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서 군용 미사일에 널리 사용된다.
- ⑤ 내외면연소는 그래인 안의 연소되는 면의 넓이는 감소하고 밖의 연소되는 면의 넓이는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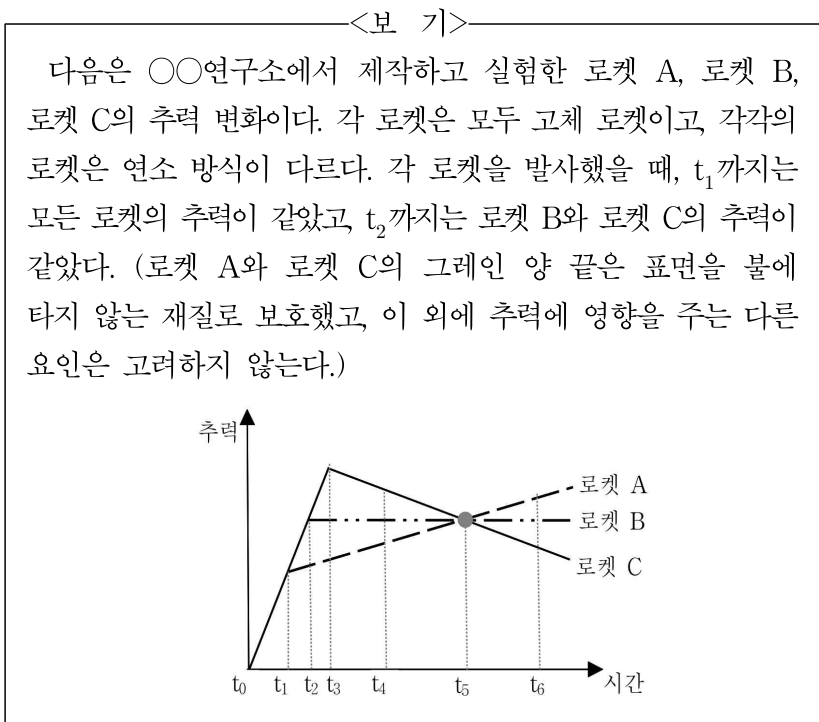
12. <고체 로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목표한 곳에 접근할수록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연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비행 중에 그래인 단면의 형상을 실시간으로 변화시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
- ③ 추력의 변화를 중립형이 되게 만들면 일정 시간 동안 경로를 제어하기 쉽다.
- ④ 연소 방식이 서로 다른 그래인을 접합시키면 추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⑤ 연료와 산화제가 균질하게 혼합된 추진제를 사용하여 추력을 낸다.

1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연소면의 수직 방향으로 최초 연소면에 평행하게 연소해서 연소되는 면의 넓이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 ② 로켓의 외부 표면에 전달되는 열을 감소시켜 로켓의 안전성을 유지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 ③ 연소되는 면의 넓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원하는 추력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 ④ 그래인의 안과 밖에서 연소가 동시에 일어나 그래인이 빨리 연소 되기 때문이다.
- ⑤ 연소가 끝나기 직전에 추력을 크게 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t_0$ 에서 로켓 A, 로켓 B, 로켓 C가 동일한 양의 그래인을 가지고 발사되었다면  $t_2$ 까지 연소된 그래인의 양은 로켓 B, 로켓 C 모두 동일하다.
- ②  $t_3$ 에서 로켓 B는 로켓 A보다 그래인의 양을 많이 소모한다.
- ③  $t_5$ 에서 로켓 A, 로켓 B, 로켓 C 모두 그래인의 연소되는 면의 넓이가 동일하다.
- ④  $t_5$ 에서 로켓 A, 로켓 B에 남아 있는 그래인의 양이 동일하다면  $t_6$ 에서 남아 있는 그래인의 양이 더 많은 로켓은 로켓 B이다.
- ⑤  $t_4$ 에서 그래인의 연소되는 면이 가장 넓은 로켓은 로켓 C이고  $t_6$ 에서 그래인의 연소되는 면이 가장 좁은 로켓은 로켓 B이다.

15.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지휘자가 악기를 관악기와 현악기로 나누었다.
- ② 그와 친구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③ 그는 자신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나누었다.
- ④ 그는 친구들과 명절 음식을 나누었다.
- ⑤ 나와 그는 운동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 주사는 추첨에 뽑혀 아내의 옷과 패물을 전당국에 잡히고 300원에 전화를 놓았다. 이를 동안 첫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던 아내는 기생 채홍이 남편을 찾는 전화에 기분이 상했다. 이 주사는 퇴근길에 선물을 사 와서 아내를 달랜다.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데 안 간달 수가 있다. 가마구 했지.” 따라 놓았던 술잔을 들어 마시고 부득부득 나갈 채비를 차린다. 아내가 모처럼 마음먹고 받아다가 준 술을 좋은 기분으로 맛있게 먹던 판이나 요릿집 가서 정종을 먹지 하는 생각을 하니 술맛도 금시로 씹쓸한 것이었다.

“또 요릿집이겠군요? 또 술로 밤을 새실 테니 진지를 좀 뜨시구 나가시구려. 참 원수의 전화를 달더니 밥상 받고 있는 이까지 불러내 가구, 별일이 다 많군!”

아내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가 없는 이 아씨는 더구나 밤에는 남편을 내놓기가 무엇보다도 싫었지만 오늘은 애를 써 차려놓은 저녁상을 받고 마악 재미있게 먹으려는 판에 그놈의 전화가 간신히 마음을 잡고 들어앉았는 사람을 들쭉서 끌어내 가니 전화 탓이 저절로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주인은 들은 체 만 체하고 두루마기를 꺼내라 해서 입고 나가 버렸다.

그날 밤으로 주인이 나간 뒤에 전화가 또 두 번이나 왔다. 처음 한 번은 주인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 아침에 결던 여자와 같은 목소리로 안 계시다 하여도 부득부득 대어달라고 하는 것이 성이 가시기에 한바탕 몰아세우고 딱 끊어버린 것은 슬며시 화풀이도 되고 통쾌도 하였거니와 그다음에 밤이 이슬하여 온 것은 남편이 요릿집에서 건 것이었다.

부부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본 일은 처음이라 목소리가 반갑기도 하여 혼자 전화통에 대고 부끄러운 듯이 웃음도 저절로 나왔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판이니 이런 때는 전화도 쓸모가 있다고 고맙게 생각하였지마는 술 취한 목소리로,

“난 오늘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두 상관없겠소? ..... 그년한테 가는 길야! 문 꼭 닫고 잘 주무시죠.....”

어찌고 하는 주정 비슷 농담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처분대로 하라 하고 끊어 버렸던 것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전화를 놓고 아내와 갈등을 겪던 이 주사는 김 주사에게 전화를 팔기로 한다.

㉡ “아침에 전화를 떼 갔죠!” 하고 앓던 이나 빠진 듯이, 그러나 일대 사변이나 일어난 듯이 남편을 보는 말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도 매우 서운한 기색으로 선웃음을 친다. 마루위를 치어다보니 판은 전화통을 받치었던 나무판만 허영게 담뭇락에 붙어 있다. 이 주사도 좀 섭섭하였다.

“그런데 우편국 사람을 데리구 왔던 사람이 이런 편지를 두구 갔어요.”

하고 아씨는 남편을 따라 들어와서 뜯어보고 난 편지 한 장을 내어 준다.

“뭐야?.....”

“글쎄 보세요?”

하고 아내는 말뚱히 남편의 기색만 살피는 양이 수상하다. 채홍이란 년이 부부 짝이나 붙여놓으려고 장난으로 편지를 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겁도 나고 불쾌한 생각이 나면서 꺼내 보니 김 주사 의 부친이 한 편지다.

자기 아들에게 여러 번 채근을 하였으나, 전화 값 칠백 원의 영수증을 왜 아니 써 보내느냐? 또 아들의 말을 들으면 그 전화는 일 년이 지난 뒤에 명의를 변경하는 규정이라니 팔고 사는 형식은 취할 수 없을 것인즉 전화를 담보로 하고 칠백 원을 취해가는 차용증서를 곧 써 보내라는 것이다.

편지를 보던 이 주사는 눈이 뚱그레지며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

“전화 값이 칠백 원이래요? 그래 이백 원은 어디 갔어요?”

편지를 먼저 본 아내는 남편을 한바탕해 널 작정으로 눈독을 잔뜩 들이고 버르고 앉았다.

“글쎄 말야! 이놈이 떼어먹은 게로군!”

“그게 무슨 어림없는 소리예요. 오백 원이고 칠백 원이고 돈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써 주셨겠지요?”

“우리 새에 영수증 여부가 있느냐기에 돈만 받구 영수증은 안 써 주었어.”

“그런 흐리멍덩한 일이 있을 리가 있나! 돈만 받구 전화 안 내주면 어찌게! 조화가 붙은 거예요. 그 돈 이백 원 어서 마저 내노슈.”

“뭘 내노라는 거야? 이런 주책없는!”

주인은 ㉢ 어이가 없어 웃어 버린다.

“무에 주책이 없어요? 채홍이 년의 입으루 들어갔지 뭐예요.”

“잘 알었소. 채홍이 년의 입으루 들어갔던지, 코루 들어갔던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어쩔 듯싶어? 이백 원 떼어 쓰자면 칠백 원 영수증 써 놓고는 못 쓰겠기에! 영수증에는 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니 임자를 속이겠을까?”

듣고 보니 판은 그렇다. 아내는 얇은 생각에 남편이 정녕 자기를 속였으리라고만 단순히 생각한 것이 열썩기도 하다.

“그래두 김 주사하구 짜구 떼어 쓰셨지 뭐야?”

“짜구 쓰기루, 김 주사 어른에게 영수증야 못 써 들여놓을까.”

그도 그렇다. ㉣ 아내의 낯빛이 좀 어색해졌으나, 다시 생기가 돌면서,

“그럼 됐구려. 그 이백 원은 내가 받아올 테니, 영수증만 써 주슈. 이 편지하구 지금이라두 가지구 가서 부자를 한자리에 앉히구 따져서 당장 받아올 테니!”

그도 그럴 듯하고 자기가 나서서 맞대해 놓고는 아무래도 거북하니까 그편이 도리어 좋을 것 같다. “아무려나 해보구려.” 하고 영수증을 써 주었다.

“그 이백 원, 받아 오면 그건 내 거예요!”

아내는 옷을 부덩부덩 갈아입는다.

㉤ “아무려나 처분대로 하우. 그 대신 인제는 바가지나 굶지 않는다든 다짐은 받아야 할 걸!” 하고 남편은 웃었다.

아씨는 전당국에서 나온 두루마기에 외투에 여우 목도리를 걸치고 남편이 저번 날 사 온 회색 장갑을 끼고 고양이같이 신이 나서 나갔다.

어떻게 되누? 하고 이 주사는 안방에 누웠으려니까 두어 시간이나 거레\*를 하더니 또 풍우같이 들어온다.

“가다간 이런 일두 있어야 살 재미가 있는 거야.”

아씨의 신기가 이렇게 좋기란 결혼 이후에 처음일 것이다.

“그래 아무 소리 없이 내놓디까?”

“마침, 아들(김 주사)두 나와 있겠쥬. 영감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전화를 안 내놓거나 하면 돈만 뜯까 봐 겁은 나구, 아들은 못 믿겠구 해서 뒷구멍으로 알아보느라구 이리 직접 편지를 했던가 봄디다. 그러나 아들이 오백 원에 흥정이 된 거라고 고집을 부립디다마는, 그럼 무르자고 야단을 쳤드니 결국 영감이 수그러지드군요. 칠백 원이래두 저희는 이가 되기에 선뜻 또다시 이백 원을 내놓겠지.”

“홍, 자식이 떼먹은 것이니까 창피한 생각도 들어서 내놓은 것이겠지만, 그 영감 결국 채홍이에게 아들의 해웃값\* 무리 꾸러해\* 준 셈이군.”

하고 슬며시 아내더러 들어 보라고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럼 채홍이 집 김장은 김 주사가 해줬구려? 홍, 그래?”

㉠ 인제야 안심이 되었다는 듯이 아내는 썰쭉 웃다가,

“여보, 우리 어떻게 또 전화 하나 댈 수 없소?” 하고 웃도 채 못 벗고, 턱밑에 다가앉아서 조르듯이 의논을 한다.

남편은 하 ㉢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하며 아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 염상섭, 「전화」 -

\* 거레: 까닭 없이 지체하며 매우 느리게 움직임.

\* 해웃값: 기생 따위와 어울려 놀고 그 대가로 주는 돈.

\* 무리꾸러해: 남의 빛이나 손해를 대신 치러.

1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간의 두 공간을 연결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액자 구조를 활용하여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시점을 혼용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여 사건 전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남편’의 외출과 전화를 건 이의 태도로 인해 상했던 ‘아내’의 기분이 나아졌다.
- ② ㉡: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떼어 간 사실을 전하며 후련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 ③ ㉢: ‘아내’는 ‘남편’의 거짓말에 속을 뻔하다가 결국 속지 않았다는 데에서 쾌감을 느꼈다.
- ④ ㉠: ‘남편’은 전화 값을 둘러싼 ‘아내’의 오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⑤ ㉢: ‘아내’는 ‘남편’이 ‘채홍’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놓였다.

18.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심화하는 반면, ㉢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완화한다.
- ② ㉠은 ‘남편’과 ‘아내’의 적극적인 대화를 이끄는 반면, ㉢은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단절시킨다.
- ③ ㉠은 ‘아내’의 말에 억울함을 느낀, ㉢은 ‘아내’의 말에 새로운 기회를 깨달은 ‘남편’의 태도를 나타낸다.
- ④ ㉠, ㉢ 모두 ‘아내’가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말한 것 같아 궁지에 몰린 ‘남편’의 상황을 보여 준다.
- ⑤ ㉠, ㉢ 모두 ‘아내’가 한 말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말이어서 기가 막힌 ‘남편’의 심리를 드러낸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염상섭은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근대 문물이 조선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여 그려낸 작가이다. 이 작품은 ‘전화’라는 의사소통 수단의 도입이 불러일으킨 변화와 이를 둘러싼 중산층 생활인의 욕망과 허위, 속물근성 등을 묘사함으로써, 근대 문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 ①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가는 장면에는 전화의 도입이 일상에 미친 영향이 드러나 있다.
- ② 부부간의 통화 장면에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남편’과 첫 대화를 나누는 ‘아내’의 설렘이 드러나 있다.
- ③ ‘남편’이 영수증을 달라는 편지를 읽는 장면에는 근대 문물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른 조선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전화 값을 둘러싼 ‘이 주사’와 ‘김 주사’ 간의 사건에는 중산층 생활인이 지닌 욕망과 허위가 드러나 있다.
- ⑤ 전화를 또 하나 놓자는 ‘아내’의 말에는 전화 소유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중산층의 속물근성이 드러나 있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중 조흥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사람 없으니 그를 서러워 하나이다

<제1수>

왕상\*의 잉어 잡고 맹중\*의 죽순 꺾어  
검던 머리 회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一生)에 효성 다하기를 **증자\***같이 하리이다

<제2수>

**만균\***을 늘어 내어 길게 길게 노끈 꼬아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 **북당(北堂)**에 하얗게 머리 센 부모님 더디 늙게 하리라

<제3수>

봉황 무리 모이신 곳에 까마귀 하나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와 같다마는  
봉황도 비조\*의 종류이니 모셔 논들 어떠리

<제4수>

- 박인로, 「조홍시가」 -

- \* 유자(柚子): 중국의 육적이라는 아이가 원술이 준 꿀을 품어다가 어머니에게 드린 고사.
- \* 왕상(王祥): 진나라 때의 효자. \* 노래자(老萊子): 초나라 때의 효자.
- \* 만균(萬鈞): 큰 쇧덩어리. \* 맹중(孟宗): 오나라 때의 효자.
- \* 증자(曾子): 공자의 제자로 효성이 지극했음.
- \* 비조(飛鳥): 날아다니는 새.

(나)

㉡ 어와 벗님네야 백년 허송(虛送) 마려서라  
궁달\*이 때 있으니 질병은 무슨 일인가  
**인생이 항상 소년 아님을** 내가 이미 알았으니  
동원(東園)의 복숭아꽃 오얏꽃 잠깐 봄을 그대 어이 모를손가  
가을바람에 병 낫고자 함을 일념으로 걸었으니

㉢ **옛사람의 놀던 자취 달처럼 밝아 있다**  
물가에서 종일토록 고관 모임은 왕희지의 놀음이요  
천명을 즐기며 의심하지 않음은 도연명의 놀음이요  
통소 부니 이는 연기는 왕자진의 놀음이요  
웃으며 안장에 앉아 낙매화(落梅花) 노래함은 이청련의 놀음이요

[A]

(중략)

이 놀음 다한 후에 공명을 기약하고  
안장 수레 치장하고 **홍진자맥\*** 찾아가니  
장삼이사 소년들이 반겨 맞아 하는 말이  
높은 벼슬 저러한데 더디 옴은 웬일인가  
녹수진경\* 낙수교 부르나니 자네로세

㉣ **높은 벼슬 낮은 것을 기쁘게 대답하되**  
이윤의 농사일도 탕왕을 만났었고  
여상의 낚시질도 문왕을 섬겼으니  
나도 또한 그 아니라 충신열사 후예로서  
마음속에 충효 두 자 밝았으니

㉤ **바라나니 성군(聖君)이요** 생각하니 명주(明主)로다  
**급암\***의 회양 다스림 그도 또한 직신(直臣)이요  
노련\*의 동해 죽음 이 아니 의사(義士)런가  
황하수 한 번 맑아 우리 성주(聖主) 나계시니  
하늘 같은 ㉥ **궁궐**에서 이 노래 들으시면

삼고초려 한의 유비 도원결의 송의 태조가  
제갈량을 다시 보니 조보\*야 또 아닌가  
한림원에 특교하여 의정부에 불러 모아  
삼당상 입궐할 때 곡진하게 하교하되  
당우의 태평성대를 내 벌써 하려 하나  
고요직설\* 못 얻어서 꿈속에서 어진 신하 바라더니  
초야의 숨은 신하 이 날에 만났으니  
오현금 남풍시\*는 문노라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 다시 함이 일정이 마땅하다  
큰 은혜 깊은 은혜 사배(四拜)하고 아뢴 말씀  
군신유의\* 중요하니 보궐습유\* 마오리가  
공명을 크게 닦고 사직을 아뢴 후에  
범려의 오호주로 한강수 건너와서  
소광의 천일금을 추성부에 흠어 두고  
감군은\* 한 곡조로 **태평주** 빚었으니  
형 오소 아우 오소 시골 인심 더욱 좋다  
그도 그러하거니와 좌우 사람 바라보니  
좋은 벼는 구름 같고 훌륭한 벼 자리 가득  
그대에게 다시 권해 한 잔 술로 오래 취해 깨지 마오  
아이야 또 술 부어라 천하만사 순간이라  
이런 놀음 저런 놀음 꿈이런가 잠이런가  
광명한 이 세상에 대장부 되어서는

㉦ **질병 없이 살아감을 진실로 바라노라**

[B]

[C]

- 남석하, 「원유가」 -

- \* 궁달(窮達): 빈궁과 영달.
- \* 홍진자맥(紅塵紫陌): 번잡하고 변화한 속세.
- \* 녹수진경(綠樹秦京): 푸른 나무가 늘어선 도성 가는 길.
- \* 급암(汲黯): 한나라의 직언을 잘했던 신하.
- \* 노련(魯連): 제나라의 신하.
- \* 고요직설(皋陶稷契): 순임금 때의 어진 신하들.
- \* 조보(趙普): 송나라의 신하.
- \* 오현금(五絃琴) 남풍시(南風詩): 순임금이 오현금을 만들어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 시를 지은 고사.
- \*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
- \* 보궐습유(補闕拾遺): 임금을 보좌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음.
- \* 감군은(感君恩):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2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의 <제3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제4수>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환기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A]는 궁핍한 상황과 영달한 상황을 교차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B]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C]는 시간을 압축한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옛사람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자신이 높은 벼슬을 다시 맡은 것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어질고 현명한 임금을 모시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와 달리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장소이다.
- ② ㉡는 ㉠과 달리 화자가 대상을 섬기기 위해 거처하는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실현된, ㉡는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실현될 장소이다.
- ④ ㉠은 화자가 정성을 다하고 싶은 대상이, ㉡는 정회를 풀어 내고 싶은 대상이 있는 장소이다.
- ⑤ ㉠과 ㉡는 모두 대상이 화자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조선 시대 사대부의 시가는 사대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충, 효, 입신양명, 풍류 등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다. (가)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마음, 풍류를 즐기하고자 하는 마음, 즐거움을 향촌 공동체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 등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마음을 형상화하기 위해 자연물, 고사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제1수>는 ‘반중 조홍감’의 존재를 통해 부모의 부재를 떠올리고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군.
- ② (나)는 ‘인생이 항상 소년 아님’을 인식하고 풍류를 즐기며 현재를 살고 싶어 하는군.
- ③ (나)는 ‘홍진자맥 찾아가’는 행위를 통해 변화한 속세에 나아가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군.
- ④ (가)의 <제2수>는 ‘증자’처럼 효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급암’처럼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를 소망하는군.
- ⑤ (가)의 <제3수>는 ‘만균’을 이용하여 부모가 천천히 늙기를 희망하고, (나)는 향촌 공동체와 ‘태평주’를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하는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날 아침에 형욱이 먼저 나가자 형씨 형제들이 따라 나섰다. 모두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좋은 말에 올랐는데, 유독 손기만은 낡은 두건에 허름한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손기가 어린아이를 불러 **작은 나귀**에 안장을 올리게 하자 계아가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의 복장이 너무 검소합니다. 모름지기 어진 사람의 마음을 가져 이전의 원한을 갚으려고 독한 수단을 부리지 마십시오. 두 집안의 좋은 분위기가 깨질까 염려됩니다.”

손기는 말없이 그저 웃기만 하고는 길을 나서 소운성과 나란히 갔다. 소운성은 **정제된 의관**을 하고 **임금이 하사한 청총마**를 타고 있었다. 소운성이 형 한림 형제와 함께 성문을 지나자, 형씨 집안의 하인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 성문을 지나자 소운성이 채찍을 휘두르며 형 한림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풀도 길지 않으니 변수 가까지 말달리기가 무척 좋을 듯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을 달려 꼴찌에게는 벌칙으로 변수의 물을 떠먹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운성이 또 손기를 괴롭히려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을 알아챈 형 한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 말을 탔으니 서로 달리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손 서방은 약한 나귀를 탔으니 어찌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손 서방은 일찍이 병이 있어 말달리기를 잘 못한다네.”

“말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오직 잘 다루기에 달렸습니다. 손 선생이 선천도의 이치를 깨달아 여섯 마리 용에 명에를 지어 하늘에 오르는 도술을 익히 배웠거늘 어찌 나귀 하나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형님이 매번 손 선생을 위한다며 제 말을 막으시니 오늘은 제가 직접 청하여 보겠습니다.”

소운성이 말을 마치고는 즉시 말을 돌려 손기에게 갔다.

“**㉠ 말달리기는 예로부터 사대부들이 해야 하는 율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함께 말을 달려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 한림이 급히 말을 돌려 말리고자 하는데, 뜻하지 않게 손기가 채찍을 들어 태연하게 응낙하였다.

“손 선생의 깊은 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형님은 무얼 그리 지나치게 근심하십니까?”

소운성이 형 한림을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고는 말의 재갈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형제들을 기러기 떼처럼 나란히 서게 하였다. 그리고는 신호에 맞추어 모두가 동시에 채찍을 들어 달려 나갔다. 몸이 날아가는 기러기같이 날랜 데다가 워낙 좋은 말을 탄 소운성이 맨 앞에서 달리고 이어 형씨 집안 형제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그들이 변수 가에 거의 다다르자 손기가 채찍을 들어 한 번 나귀를 쳤다. 그러자 나귀가 굽을 솟구쳐 오르더니, 별이 흐르고 번개가 지나듯이 가운데를 꿰뚫어 먼저 변수 가에 도착하였다. 잠시 후 형씨 집안 형제들도 차례로 이르렀다. 다만 소운성이 탄 말만은 뒷굽이 무거운지 달려 나오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배에 오른 후에야 겨우 도착한 소운성이 말에서 내려 자리에 앉았다. 손기는 잠잠히 말없이 앉아 있었고 형 한림은 크게 웃었다. 소운성은 말을 오래 세워놓아 말에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며 탄식하였다. 형씨 형제 가운데 둘째와 셋째가 하인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고는 소운성에게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였다. 비록 말을 잘하는 소운성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소운성은 손기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여전하다. 그러나 어린 아들이 요사스러운 광대에게 혼을 빼앗겨 죽을 위기에 처하자 태도를 바꾸어 손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손기는 도술로 소운성 아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고 요사스러운 광대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집안은 이미 아이가 돌아왔다며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소운성이 **손기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하며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있는데, 문지기가 급히 들어와 고하였다.

“어제 놀이판에 와 놀음을 놀았던 광대가 묶인 채 문밖에 이르렀 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으나 이미 알고 있는 소운성은 놀라는 기색 없이 아버지 소현성에게 가서 그동안의 경과를 아뢰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광대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끌려온 광대는 두 팔이 묶인 채 소운성을 보고는 한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소운성이 크게 화를 내며 큰소리로 꾸짖었다.

“요망한 놈! ㉞ 감히 하늘을 속이고 사람 목숨을 해치며 세상의 도리를 어지럽혔으니 아홉 번 죽여도 죄를 용서하지 못하리라.”

즉시 하인들에게 형장을 베풀어 매우 쳐 죽이라고 명하였다. 광대가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자 소현성이 그 소리를 듣고 소운성을 불렀다.

“저 요망한 놈의 죄는 죽여도 아깝지 않다. 허나 나라의 죄수가 아니니 어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처단하겠느냐? 하물며 유학의 도를 걷는 내가 어찌 사람을 가볍게 죽여 자그마한 원망을 사려고 하느냐? 그 죄를 널리 알리고 다스려 먼 곳으로 내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소운성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 손기가 한 말을 고하였다.

“놓아주고 살려주고는 네 동서가 이른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하니 굳이 그 뜻을 어기면서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이 요괴를 놓아주었을 때 다른 지방에 가 술법을 팔아 장난을 친다면 후일 큰 걱정거리가 될까 염려스럽구나.”

“제가 집으로 올 때 동서가 부적 하나를 주면서, 이 부적을 광대에게 주어 혼계하면 더 이상 제멋대로 굴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없겠구나.”

말을 마치고 소운성이 밖으로 나와 매질을 그치게 하고 손기가 준 부적을 꺼내어 광대에게 보여 주었다. 부적을 본 광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추었다.

“다시는 감히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절을 멈추지 않았다. 소운성이 **묶은 것을 풀어주며** 말하였다.

“네가 이제 이 나라를 떠나 삼천리 밖으로 가면 네 죄를 용서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벌**을 받을 것이다.”

광대가 황급히 대답하고는 머리를 감싸고 쥐 습듯 돌아갔다.

소운성이 안채로 들어가 경아와 계아에게 신령을 불러 요괴를 사로잡아 아이의 혼백을 찾아오던 진말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경아가 놀라고, 계아 또한 한동안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튿날 소운성이 **술과 먹을거리를 가지고** 형씨 집안으로 가서 형 한림 형제와 손기를 찾아 함께 즐기며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을 **사례**하였다.

- 작자 미상, 영이록 -

2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계아는 허름하게 차려입은 손기에게 좋은 분위기를 깨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② 형 한림은 일찍이 병이 있어 말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손 서방을 위로하였다.
- ③ 형씨 형제들은 핑계를 대는 소운성에게 변수의 물을 마시라고 재촉하였다.
- ④ 소현성은 광대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과를 아들에게 전해 들었다.
- ⑤ 손기는 동서에게 자신이 준 부적을 광대에게 주라고 일러 주었다.

25. **작은 나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소운성이 손기의 정체를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② 손기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③ 손기가 계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④ 형 한림과 손기의 관계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 ⑤ 손기에 대한 계아의 신뢰를 보여 주는 상징물로 사용된다.

26. ㉞, ㉟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㉞에서는 상대방에게 과거의 예법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설득하고 있다.
- ② ㉟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초래한 결과를 나열하며 처벌을 피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㉞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즐거움을 함께하자고 부추기고, ㉟에서는 개인적인 원한을 숨기기 위해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 ④ ㉞에서는 상대방의 무지를 일깨우며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㉟에서는 상대방이 끼친 해악의 정도를 거론하여 지은 죄가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㉞와 ㉟ 모두 사회적 가치나 관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영이록’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는 갈등을 겪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물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어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하며 화해에 이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도술과 같은 도교적 질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되어 유교식의 사회적 성취나 사대부가의 가치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정제된 의관'을 입고 '임금이 하사한 청충마'를 탄 모습에서, 소운성이 임금에게 인정받아 유교식의 사회적 성취를 이룬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② '말을 달려 꼴찌에게는 벌칙으로 변수의 물을 떠먹이'자고 제안하는 장면에서, 소운성이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손기를 골탕 먹이려 함을 알 수 있군.
- ③ '손기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하며 마음속으로 칭찬하'는 모습에서, 소운성이 도교적 질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뭍은 것을 풀어주며' 멀리 가지 않으면 '다시 벌'하겠다는 장면에서, 소운성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대 부가의 가치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술과 먹을거리를 가지고' 형 한림 형제와 손기를 찾아가 '사례하'는 장면에서, 소운성이 문제를 해결해 준 손기에게 감사를 표하며 손기와 화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밖은 봄철날 따지기\*의 누긋하니\* 폭석한\* 밤이다  
 거리에는 사람도 많이 나서 흥성흥성\* 할 것이다  
 어쩐지 이 사람들과 친하니 싸다니고 싶은 밤이다  
 그렇건만 나는 하이얀 자리 위에서 마른 팔뚝의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 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또 내가 아는 그 몸이 성하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술을 먹으러 다닐 것과  
 내 ㉠손에는 신간서 하나도 없는 것과  
 그리고 그 '아서라 세상사\*'라도 들을  
 유성기도 없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내 눈가를 내 가슴가를  
 뜨겁게 하는 것도 ㉡생각한다

- 백석, 「내가 생각하는 것은」 -

- \* 따지기: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초봄 무렵.
- \* 폭석한: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이 있는.
- \* 누긋하니: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한.
- \* 흥성흥성: 여러 사람이 활기차게 떠들며 계속 흥겹고 번성한 분위기를 이루는 모양.
- \* 아서라 세상사: 임방울의 단가 '편시춘(片時春)'의 도입부 가사.

(나)

때마침 진눈깨비 흩날린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딱딱한 ㉠손이 들어 있다  
 저 눈발은 내가 모르는 거리를 저벅거리며  
 여태껏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내들과 건물들 사이를 헤멜 것이다  
 눈길 위로 사각의 서류 봉투가 떨어진다, 허리를 나는 굽히다  
 말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참 많은 각오를 했었다

내린다 진눈깨비, 놀랄 것 없다, 변덕이 심한 다리여  
 이런 귀갓길은 어떤 소설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구두 밑창으로 여러 번 불러낸 추억들이 밟히고  
 어두운 골목길엔 불 켜진 빈 트럭이 정거해 있다  
 취한 사내들이 쓰러진다, 생각난다 진눈깨비 뿌리던 날 하루  
 종일 버스를 탔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낡고 흰 담벼락 근처에 모여 사람들이 눈을 던다  
 진눈깨비 쏟아진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일생 뭇의 경험을 다했다, 진눈깨비  
 - 기형도, 「진눈깨비」 -

28.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상승의 이미지를, (나)는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여, (나)는 화자의 시선을 고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는 유사한 소재를 나열하여, (나)는 상반된 소재를 병치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시켜 대상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비어 있는 상태는 ㉡을 유발하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긍정하도록 한다.
- ② ㉠과 ㉡ 모두 '나'가 자신의 삶이 전환되었던 계기를 떠올려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도록 한다.
- ③ ㉡은 자신의 생각을, ㉠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상화하여 '나'의 상태를 드러낸다.
- ④ ㉡과 ㉠ 모두 '나'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도록 한다.
- ⑤ ㉡의 딱딱한 상태는 ㉠을 이끌어 내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시에선 화자의 기억이나 상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기억이나 상상은 시간을 넘나들며 화자의 현재에 침투하여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가)와 (나)의 화자는 현재 자신과, 기억이나 상상 사이에서 동질감 또는 이질감을 느끼면서 정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① (가)의 '하이얀 자리 위'에 있는 화자는 '거리'에 대한 상상에 이질감을 느끼면서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의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는 화자는 '처녀가 시집을 간 것'에 대한 기억에 이질감을 느끼면서 상실감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나)의 '서류 봉투'를 떨어뜨린 화자는 '각오'에 대한 기억에 이질감을 느끼면서 불행의 정서가 유발되고 있다.
- ④ (가)의 '마른 팔뚝'의 화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 (나)의 '귀갓길'에 있는 화자는 '어떤 소설에선가 읽은' 기억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결핍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⑤ (가)의 '신간서', '유성기'가 없는 화자는 '사람들'에 대한 상상에 이질감을, (나)의 '변덕이 심한 다리'로 걷는 화자는 해매는 '눈발'에 대한 상상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공허함이 심화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